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3월 15일(금)
(음력 2월 6일)
Пятница
15 марта 2024 г.
№ 10 (1207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8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사할린주 공공감시센터에서는 3일간 투표소 170곳을 영상감시카메라로 감시할 예정이다. **(주정부 제공)**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8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선출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취임식은 2024년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2030년 5월 7일까지다.

후보 출마자 명단에 4명 중 3명은 정당 소속으로 레오니드 슬루츠키(56세. 자유민주당), 니콜라이 하리토노브(75세. 공산당), 블라디슬라브 다완코브(40세. '신국민'당)이며, 블라디미르 푸틴(71세)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두마 정당의 지지로 출마했다.

사할린주에는 전체 지역 선거위원회 20개 중에는 2개 선박위원회가 포함돼있다. 투표소는 총 290개소가 마련되었고, 병원들, 제1구치소,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그리고 마투아섬 등 임시투표소 10개소가 준비되었다. 외딴 지역과 벽지 마을의 주민들은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

이번주 초까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7천여 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3월 11일에 열린 사할린주 정부회의에서 밝혔다. 선거위원회 위원들은 국경 부대와 등대, 석유·가스 기업 등 개별적으로 투표하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방문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도왔고, 선거일에 항해하는 선원들을 위해 특별선박위원회도 조직했다.

투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카메라와 영상등록을 전 지역 투표소에 설치했으며, 170곳 투표소에는 선거 공공감시센터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도록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3월 15일, 16일, 17일에는 24시간 투표소가 감시되며, 사할린주의 참관인 약 300명이 선거과정을 감독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할린주선거위원회 빅토리아 체르카소와 위원장은 "사할린주는 모든 선거준비가 완료 되었다."고 밝혔다. 사할린주 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준비과정으로 회의를 가지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공공감시센터를 방문하였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사할린주의 유권자는 37만3천591명으로 등록되었다.

이동의료팀, 3월에 사할린 전 지역 방문진료

이동의료팀이 3월에 사할린 전 지역을 다니며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가장 대규모 진료팀 중 한 팀이 3월에 우글레고르스크에서 17일간 진료 및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중심지에서 이동진료팀은 지역의 의사가 휴가나 병가로 떠날 경우 환자들에게 의료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이동의료팀〉 기획은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지난해 시작되었다. 현재 의료진은 15개 진료과목에 따른 54명의 의사들로 구성돼 있다. 의사들 각각은 교대로 환자 25명까지 접수해 진료한다.

이동의료팀에는 사할린의 의사들을 비롯해 사할린을 방문한 고급 자격증을 갖춘 전문의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규직원 배정은 원칙적인 결정이었다. 따라서 이동의료팀의 활동은 지역 의료기관의 병동들을 밝히지 않는다.

사할린 주민들은 미리 이동의료팀의 방문을 숙지하고, 간호사들이 진료소가 돌보는 환자들에게 전화로 호출한다.

우글레고르스크 중앙병원 보건소 올가 고워루히나 부소장은 "이동의료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매달 우리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과목에 따른 의사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료과목을 근거로 우리를 위한 일정이 편성된다. 전문의들은 전혀 거절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표준 진료량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해왔다. 이동의료팀은 필요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들의 집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언제나 의료진의 방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세부 과목의 이동의료진에게 진료받을 시 환자들은 검사결과나 다른 검진결과를 가지고 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보건〉 국가기획 1차 의료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급된 이동진료차량은 의료진이 연속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동의료진은 사할린의 지역 병원만 아니라 쿠릴열도에도 방문진료차 떠나기도 한다.

3월에는 유즈노쿠릴스크에서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세웨로쿠릴스크에서는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내분비내과의 전문의들이 진료, 쿠릴스크에서는 심장내과, 류마티스 내과, 소화기내과(위장병), 내분비학과 전문의들과 초음파 전문의들이 진료를 한다.

단신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사할린에서 개최

3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3일간 사할린주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17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사할린의 뛰어난 선수들의 경기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워스토크' 교육훈련센터에서 진행된다. 대회 주최 측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응원하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모든 피겨스케이팅 애호가들을 초청하고 있다. 입장은 무료다.

사할린 교사들, 전 러시아 경연에서 우승 및 수상

3월 6일(수)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제19회 〈교육학적 데뷔(입문)〉 전 러시아 경연대회의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19회 〈교육학적 데뷔〉 경연이 3월 2일부터 6일까지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 56개 지역에서 출전한 211명의 교사들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이들 중에는 사할린의 젊은 교사들도 있었다.

매해 이 경연대회는 통신과 직접 참가 두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에 통신 단계 경연에는 71개 행정자치지역들에서 1천 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가했고, 직접 참가 단계의 경연 결과 유즈노사할린스크 20호 학교의 물리 교사인 이완 카쉬킨과 유즈노사할린스크 '루치크' 38호 유치원 원장 타치야나 코프만이 본선을 통과됐다. 심사위원들은 러시아 전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경연대회 총결과 〈유치원 청년 지도자〉 부문의 우승자로 타치야나 코프만이 선정되었고, 〈청년 교사〉부문에서는 이완 카쉬킨이 수상했다.

러시아 종교의 역사, 전국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필수과목 돼

〈러시아 종교의 역사〉 과목을 전국 모든 대학에 도입한다. 현재 이 과목이 전국 28개 대학들에서 필수과목으로 선정된다고 러시아 연방 교육과학부가 전했다.

국내 모든 대학에서는 다음 학기부터 이 학과목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과목에서는 러시아의 종교적 가치와 전통 및 러시아 종교의 역사와 발전을 교육내용으로 정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마슬레니차 축제에 초대

3월 17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시공원에서 마슬레니차 축제에 주민들을 초대한다. 행사로는 춤, 노래,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러시아 전통놀이가 준비돼있다.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활동교실을 열어 블린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사할린주의 셰프-요리사의 정통 조리법에 따라 준비한 스메타나를 넣은 보르쉬, 따뜻한 차와 제빵을 대접한다. 축제의 일환으로 직거래 시장도 열린다.

올 3월 17일은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공공관리 분야 근로자의 날

한국식 세탁소를 운영하는 정창열 씨

매년 3월 세 번째 일요일을 러시아에서는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공공관리 분야 근로자의 직업 기념일로 기린다. 이 분야에서 활약하는 분을 찾는 중 지인 한 분이 생각 났다.

정창열 (1957년생, 러시아 이름 갈리나)씨다.

그녀는 21년째 개인 세탁소(드라이크리닝)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다. 작년 10월에는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으로부터 축하문도 받았다. 그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지점이 2개인데 하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돔 븨타'에, 다른 하나는 '플라자'쇼핑센터에 있다. 정창열 씨는 주로 '돔 븨타'에서 세탁과 드라이클리닝 관련 직접 주문, 접수, 반납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돔 븨타'는 생활서비스센터나 다름이 없었다. 여기에는 사진관들, 재봉 작업실들(의상실, 의상 수선실), 시계수리점, 세탁소, 미용실들 등등 서비스 분야 관련 지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 맨 처음에 다른 장소에 자리를 잡았던 정창열 씨의 세탁소의 본점은 '돔 븨타' 건물의 1층으로 이전해 장기간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여기에서는 의류세탁, 드라이클리닝을 해준다.

"우리가 2003년도에 개업했는데 이건 저희 조카가 이미 한국 기술을 이용해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법을 이미 익혔고, 또한 제가 남편과 함께 이 세탁소 운영을 맡아 운영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정창열 씨가 설명했다.

사실 일에 대한 그의 자격은 충분했다. 모스크바 경공업기술대학의 노워시비르스크 분교에서 공부하여 재봉공정 엔지니어 졸업장을 받고 1980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의류(재봉)공장에 파견되었다. 노워시비르스크 분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국적자여서 모스크바 본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공장에서는 마스터, 기술전문가 등으로 거의 12년간 일했다. 수준 높은 전문가로서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맡기도 했다. 경제난이 있었던 시기에 이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참에 회계학 과정에 입학하여 회계원 전문 자격증도 따냈다.

1994년에 그의 친구가 사립 전문학교 '폴리텍니쿰'을 개교하여 정창열 씨는 이 학교에서 '옷감(의류 재료)'이란 과목을 가르쳤다. 그리고 회계원으로도 활동했다.

바로 이런 지식들과 기술이 새로운 사업을 자신있게 시작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정창열 씨는 이 사업을 해오면서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 적성에 맞기도 하고, 중년의 부부가 생활하는 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점에서 정창열 씨는 주로 주문을 받고, 또 한 지점에서는 막내 여동생이 관리하고 있다. 세탁 작업실은 따로 도시 북쪽에 있다. 거기에서 조카가 본격적으로 세탁, 드라이 작업을 하고 있고, 정창열 씨의 남편 지운택 씨도 그를 도우며, 관리작업일을 맡고 있다. 조카가 일하지 못하는 경우 정창열 씨가 직접 나서서 세탁과 드라이크리닝 작업을 한다.

"물론 조카보다 속도가 떨어지지만 저 나름대로 하는 시스템이 있고, 소비자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라고 정창열 씨가 말하였다.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란 필자의 질문에 "우리가 한국의 재료를 쓰기 때문에 한때 코로나19로, 요즘에는 러시아에 관한 제재로, 가격인상 등으로 좀 어려워졌지요."라며 "처음부터 부산에서 배로 재료를 받아왔는데 요즘 한국에서 새 제재에 들어가면서 각 자료에 대한 허가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얼마 전에 한국 측으로부터 왔다"고 했다.

'돔 븨타'에는 2개의 세탁소가 있는데 정창열 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와 2 층에 있는 세탁소 두 곳 다 한국식 세탁소로 한국의 세탁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정창열 씨는 소비자들을 위해 조금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전보다 단골손님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장기간 우리 가게를 찾아왔던 일부 손님들을 얼마 전부터 뵙지 못해 '이들이 사할린을 떠났나 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라며 걱정스레 말했다. 그래도 고객 수는 아직 괜찮고 매출도 괜찮다고 한다.

필자는 처음 정창열 씨를 다른 사업으로 만났다. 그분을 볼 때 '참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정창열 씨는 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상대방에게 옳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올바르게 직선적으로 말한다. 한 번 어떤 행사에서 그의 발표를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발표 내용이 깊고 표현력도 아주 풍부했고,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이분이 깊이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카로브시에서 태어나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다.

"어머니가 재혼하신 후 저를 낳으셨고 저 밑에 여동생 4명 생겼습니다. 사망하신 그의 첫 남편 사이에는 두 언니와 오빠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주도 서귀포 출신이십니다. 우리가 마카로브시에 사는 동네에는 거의 한인 가족이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끔 만남을 가져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1986년, 어머니는 1987년도인데 그땐 아직 모국과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였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고향 땅을 다시 못 밟으셨지요."라고 하는 정창열 씨는 긴 숨을 쉬었다.

1996년에 그녀는 남편과 자녀(아들과 딸)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그때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도를 찾아가 친척들과도 인사를 했다. 안타깝게도 충청도 출신인 아버지의 친척들과는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왠지 아버지의 친척들이 만남을 거부했다고 한다.

어머니 고향은 두 번 더 갔었다. 2010년에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었고, 어머니가 사셨던 집까지

찾아갔다. 제주도 여행은 아들의 기획으로 아들이 숙소를 마련하고, 자동차도 렌트했다며 대견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여동생과 함께 제주도에 갔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형편이 좋아지면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도로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정창열 씨는 말한다.

정창열 씨는 1957년 11월의 출생이어서 학교에 늦게 1958년생들과 함께 들어갔었기 때문에 조선학교가 폐교되어 한글을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가 제일 잘 쓰는 글씨는 자기 이름뿐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르쳐주셨다고 한다. 한글을 잘 모르긴 해도 한국말은 구사할 수 있다. 어렸을 때 집에서 거의 한국어로만 말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러시아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러시아 말을 거의 못했다고 한다. 정창열 씨는 요즘 재미있게 한국 드라마를 보며, 기회가 있을 때면 한복 입기도 좋아한다고 한다.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했던 부모님이 떠나고, 한국을 자주 오가며 고국에 대한 향수를 풀었던 시기도 멀어졌지만 그래도 한국의 것을 마음에 담고, 한국의 것을 바라보며, 다시 자유로이 고국을 제집 다니듯 다닐 날을 꿈꾼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제25회 기념 사할린 스키마라톤 참가자 수 기록적

제25회 파르후트지노브 사할린 국제스키마라톤이 3월 8일-9일 이틀간 개최된 가운데 49개 지역들에서 13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해 참가자 수는 기록적이었다. 스키마라톤에 극동지역, 시베리아, 러시아 중심지역 등지의 대표 선수들을 비롯해 카자흐스탄의 선수도 참가했다.

첫날 경기에서 선수들은 클래식 유형 30km 코스에서 경기를 치렀고, 례스노예 마을에서 출발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공원까지 완주했다. 3월 9일에는 자유형 30km , 50km코스에서 경기를 펼쳤다.

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열려 첫날에는 6세-13세까지의 아동들이 1km 코스에서 경기를 치렀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km 코스에서 경기가 펼쳐졌다. 둘째 날에는 14세 -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km코스에서 경기가 열렸다.

스키마라톤 총상금은 450만 루블리며, 시상식은 3월 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크리스탈'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스키마라톤에 유럽 및 세계선수권대회 및 올림픽 경기의 수상자들도 참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서 3월 7일에는 유명 스키선수들이 '트리움프' 바이애슬론 스키단지 구역에서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활동교실을 진행했다.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собрал юбилейный XXV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на Сахалине

XXV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амяти И. П. Фархутдинова, который прошел 8-9 марта, собрал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 более 13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49 регионов. В марафоне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ибири,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и т.д. В марафон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также спортсмен из Казахстана.

В первый день участники преодолели марафонские дистанции в 30 км классическим стилем. Лыжники стартовали в поселке Лесное и финишировал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9 марта спортсмены пробежали дистанции в 30 км и 50 км свободным стилем.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соревнования и среди детей. В первый день стартовали дети от 6 до 13 лет на дистанцию километр. Также был дан старт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на дистанцию километр. Во второй день состояли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у детей от 14 до 17 лет (дистанция 5 километров).

Общий призовой фонд марафона впервые составляет 4,5 млн рублей.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ялась 9 ма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 Дворце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Отметим, что в лыжном марафон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также призеры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чемпионы Европы и мира. 7 марта именитые спортсмены провели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мастер-класс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лыжно-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риумф".

사할린 연금수급자 4만 명 이상, 영화와 박물관 무료 이용

사할린의 연금수급자 41만 명 이상이 〈사할린 장수〉지역 기획의 참가자들이다.

이 기획은 지역 고령층 주민들 대상 여가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 정부가 전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영화관과 극장, 박물관, 동물원,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공연에도 참석한다. 이 기획은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고령세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고령의 세대에게 적합한 활동과 건강과 장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각 사람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며, 장수하고, 건강한 생활과 손주와 증손주를 보며 행복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대통령이 연설 중 언급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성 주민인 왈렌티나 쇼스타크는 은퇴하자마자 더욱 활동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기면서 현재 그녀는 체육관과 수영장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이 모든 장기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체육관에서 테니스 경기를 비롯해 일주일에 3번 운동하고 있다. 또한 아쿠아시티 수영장은 일주일에 한 번 이용하고 있다. 고령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주 도움이 되며, 건강을 강화하고, 다리도 안 아프며, 혈압에 좌우되지도 않는다."고 왈렌티나는 말한다.

이 기획에 55세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 상시 거주자로서 '사할린주민 통합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단히 인기가 있어 이미 4만1천 명의 사할린 주민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2019년부터 주 예산으로 시행된 이 기획에 5천800만 루블리가 배정되었다."고 사할린 사회복지부 올가 오를로와 장관이 덧붙여 설명했다.

Более 40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пенсионеров ходят бесплатно в кино и музеи

Более 41 тысячи пенсионе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Он направлен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досуга пожилы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По программе бабушки и дедушки ходят в кинотеатры, театры, музеи, зоопарк, в спортзалы и на концерты. Проект реализуют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нее всемерно поддержать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призв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8면에 계속)

사할린한인단체들, 3 · 8절 기념

지난 3월 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주최로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에는 1세 어르신들,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 예술단체 단원 등이 초대되었다. 이날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이 세르게이 부회장, 그리고 청년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청소년들이 여성분들에게 따뜻한 감사를 전하며 행복을 기원했다. 주최 측에서 이날 모든 여성들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씩 드렸고, 명절 밥상을 차려 놓았다. 또한 명절 축하 케이크도 준비되었다.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과 '희망'무용단의 공연, 그리고 가수 최 드미트리의 공연은 이날 좋은 선물이 되었다.

* * *

같은 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 건물에서는 오전부터 노인정에서 모임이 이뤄진 가운데 어르신들이 체육수업도 받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시한인회 여성 회원들과 1세 할머니들에게 장미꽃을 나눠드렸고, 이들을 위해 한 색스폰 연주, 강팔용 동포가수와 초등학교 3학년생인 유미가 하는 한국노래, 김 갈리나의 시낭송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봄 명절인 여성의 날 기분은 역시 좋았다.

(본사기자)

정정

본지 2024년 3월 8일자 신문에 '3월 부터 '2024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제목 아래 실린 기사의 "한편 2023년도 영주귀국 대상자는 당초 270명에서 사정으로 인해 취소자가 발생해 최종 287명이라고 전했다." 문장에서 267명이라고 정정합니다.

새고려신문 편집부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추가 현대적 의료장비 구입 및 의료진 유치

올해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보건소를 위해 검진 및 질병 치료용 현대적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진료 세부 과목의 의료진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사할린주 보건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 장관이 지방 출장 결과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에게 보고했다.

주 보건부 장관이 우글레고르스크와 샤흐쵸르스크에서 의료계 종사자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가운데 의료진들은 현대적 의료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작동되고 있는 윤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낡은 엑스레이(X-ray) 장비의 개선을 그중 하나로 요청했다. 그는 특별 조정을 위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새로운 기계를 어느 의료기관의 의사든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전자시스템과 양립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달 안에 지역을 위한 전문적 초음파 장비를 구입하고, 치과를 위해 새로운 치과 진료용 의자를 분기별 한 번씩 구입하여 1년 내에 치과 장비를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 장관이 주지사에게 보고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이다. 우글레고르스크지역에 의사 유치에 따른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검사를 하거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올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지방 도시에서 환자들 요구의 대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책이 우리에게 있다.

또한 〈건강의 안내자〉기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글레고르스크만 아니라 주 전체에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여성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초음파 진단 전문가가 부족하여 주 보건부 장관의 조치로 초음파 진단 전문의 한 명이 우글레고르스크로 떠났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한 의사는 6개월간 해당 재교육을 받게 되며, 2주 안에 신경내과 전문의가 이 지역에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전문의에 대한 수요는 이동의료팀들이 해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 주 보건부장관은 출장 중 현대적 보건소가 건립되는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모든 현대적인 표준에 걸맞는 의료기관에서는 향후 교대로 성인과 아동 700 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건설 현장에는 80명이 일하고 있으며, 건설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보건소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 보건부 장관은 우글레고르스크 출장 일정으로 건강 안내자들과 만남을 갖고, 의약품 공급 정도도 점검했다.

사할린주, 올해 26km의 기술 연결망 복구

2023년-2027년 사할린주에 공공제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난방관, 상수도관, 하수관 등 총47km가 넘는 연결망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작업은 지역개발기금의 참여로 시행되며, 그 덕에 9천여 명의 주민들이 품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할린의12개 지역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9개 지역은 이미 정비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사할린주 공공주택사업부의 나탈리야 쿠프리나 장관은 "마침내 6천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었다. 공공제반시설 연결망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2023년-2027년까지 난방관, 상수도관, 하수관 연결망 보수공사에 따른 47개 조치가 지역 시행 프로그램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정비작업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뤄진 가운데 상수도관 5.3km, 난방관 2.2 km, 하수관 0.4km를 보수공사했다.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샤흐쵸르스크 구역에서는 길이 1km 이상의 상수도관과2km 이상의 난방관을 현대화했으며, 연말까지 17개 시설들에서 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총 26km의 기술 연결망을 보수공사할 계획이다.

새고려신문 창간 75 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클(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gmzil.ru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나쁜 소년이 서 있다 / 허연

세월이 흐르는 걸 잊을 때가 있다. 사는 게 별반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편 같은 삶의 유리 조각들이 처연하게 늘 한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무섭게 반짝이며

나도 믿기지 않지만 한두 편의 시를 적으며 배고픔을 잊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 나보다 계급이 높은 여자를 훔치듯 시는 부서져 반짝였고, 무슨 넥타이 부대나 도둑들보다는 처지가 낫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외로웠다.

푸른색.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더럽게 나를 치장하던 색. 소년이게 했고 시인이게 했고, 뒷골목을 헤매게 했던 그 색은 이젠 내게 없다. 섭섭하게도

나는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드는 건 사과를 베어 무는 것보다 쉬웠다. 그러나 나는 푸른색의 기억으로 살 것이다. 늙어서도 젊을 수 있는 것. 푸른 유리 조각으로 사는 것.

무슨 법처럼, 한 소년이 서 있다.
나쁜 소년이 서 있다.

"검정치마의 힘이 대단합니다. 패션 말고 인디 록 밴드 〈검정치마〉. 뮤지션 '조휴일' 혼자 작사 작곡이며 편곡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목소리 역시 감성 넘치는 원맨 밴드 〈검정치마〉. 음악 하는 분들 대다수가 즐겨 듣는다고 하니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는 별명이 그리 과한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선후배 작가들 차를 타면 이상하리만치 검정치마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센티한 분위기가 매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생각 중입니다. 최근에는 뉴진스의 〈DITTO〉를 작사했으니, 저작권 부자로 빌딩 올리시겠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부럽죠. 부럽습니다.

검정치마만큼 부러운 시인입니다. 허연 시인. 검정치마처럼 자주 들춰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시를 이해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는 느끼는 거지요. 이건 '재즈'를 떠올리시는 게 편합니다. 이해했다고 하는 순간, 말짱 꽝인 겁니다. 느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그래서였을까요. 아내가 허연 시인의 엄청난 팬입니다. 제게 종종 시를 권하는데 대부분이 허연 시인의 시입니다. 문학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책이라면 일단 피하고 보는 사람이 좋아하는 시인이라니. 하물며 허연 시인은 시인 중의 시인으로 꼽히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떠나 부러울 수밖에요. 속 좁은 제겐 역시 부럽기만 한 위인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이번 주는 부러운 예술가 봄날 특집 이런 건가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거나 졸거나 하는 게 우리 부부의 주말 일상입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권하는 책은 늘 한병철의 〈피로사회〉였습니다. 책도 작은 사이즈라 가방에도 쏙 들어가고, 무엇보다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읽다 보면 카드값 많이 나오고 가계부 빵꾸나기 쉬운 거, 사랑이 이루어진다기보다 실연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우리의 현실 모두가 지금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멋진 철학이 담겨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걸 서너 페이지만 읽다가 늘 졸더라고요.

그런 분이 허연 시인의 시는 왜 읽고 또 읽을까. 그걸 넘어 추천들을 왜 그리 하는 걸까. 팔짱을 낀 채 제가 야무지게 고민해보니까 역시 정답은 분위기더라고요. 행간마저 지배하는 분위기. 하여 저는 검정치마, 곽진언 틀어놓고 허연을 읽습니다. 언젠가 제 목소리에도 분위기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죽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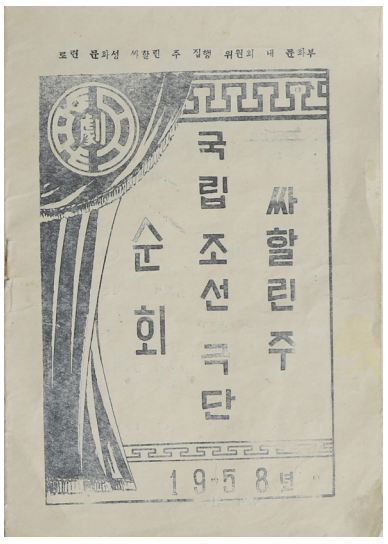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т рассвета до заката

О судьбе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театра в каталоге выставок

В самом конце 2023 го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был издан каталог выставок «В кино – театр». Составители этой книги – Марина Гридяева, Анна Исайкина и Ким Чан Ок – впервые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ли и представили для широкой читательской аудитории оригиналы фотографий, фотонегативы 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священные истор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собственных театров и киноучреждений. Всего в каталоге выставок более двухсот страниц. При этом небольшой, но яркой частью нового издания становится публикация материалов, отражающих судьбу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Официальное рождение театра определяется в отпечатанном на пишущей машинке решении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96 человек), когд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исполкома в мае 1948 года был поставлен вопрос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финансового плана», «штатного расписания театра» и просьбы о выделении «22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окрытие разрыва между доходной и расходной частью театра».

Составителями каталога выделены такие сведения, как дата создания театр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из концертно-эстрадного ансамбля и театральной бригады), место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едставлений спектаклей или концертов (сначала – складские помещения,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ные под репетиционный зал, а позже – ветхое здание старого кинотеатра) и др. Кроме того, в каталоге приведена в качестве иллюстрации программа гастрольного репертуарного театр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аны фотодокументы о театральном отделении и эстрадном ансамбле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А еще указана численность первых актеров, певцов и музыкантов, 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мастерство, отмечены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гастролей и репертуар. Пишут составители каталога, что на сцене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ставились не тольк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значально созданны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о и образцы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Это привлекало внимание еще и зрителей, не владевших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Прочитывается в каталоге выставок и печальная судьб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 в 1959 году он был реорганизован в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и танца, передан в ведение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а затем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вовсе свелась к работе кружко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Все эт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теперь в публи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материал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театру, могут быть интересны не только потомках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но и ученым,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мся на теме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СахГУ

Guardian: K-Culture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всему мир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K-Culture расширяет границы, затрагивая не только массовую культуру, но и такие сегменты как косметика, кухня, литература и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Об этом пишет 6 марта британская газета Guardian.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Netflix, Disney, Apple TV+, BBC и другие мировые площадки стремятся получи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нтент.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детские каналы CBBC и BBC iPlayer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запустили сериал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Каннам проект», в котором показан путь брата и сестры, канадцев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 славе в качестве суперзвёзд K-POP. Индустрия K-POP приобрета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характер, поскольку авторы текстов, дизайнеры, хореографы и дру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участвующие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музык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работают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пишет Guardian. Стремительный рост популярности K-Culture в мире объясняется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ой государства и тесны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с частными инвесторами.

KBS World

Все о любви

5–6 марта в преддвер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енского дня в Корейском театре прошел музыкально-поэтический вечер «Все о любви», специально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для прекрасной половины зрителе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Специальными гостями бы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из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редседатель АКНЦ Андрей Шин поздравил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дам с наступающим праздником, а от центра все гостьи в зале получили памятные презенты. Ведущей вечера музыки и поэзии, а также её режиссером-постановщиком, выступила неповторимая Екатерина Пен.

Перед тем, как занавес откроется, обычно ожидают увидеть одного или двух артистов в готовых позициях. Но на сей раз зрители, особенно женщины, были приятно удивлены, увидев на сцене полный состав вокалистов K-voice и аккомпанирующих музыкантов. В тот вечер все было о любви. Звучали песни и стихи великих композиторов и поэтов. А начался концерт с песни «Он алты кыз», где звучат имена шестнадцати прекрасных женщин, и каждой из них наши певцы признавались в любви.

Посреди концерта в зал вбежал неуклюжий мужчина с пакетом в руках. Зрители на первых рядах отпрянули назад, сначала никто не узнал незнакомца. Мужчина выбежал на сцену, тогда-то все увидели любимого актера Алишера Махрипова. Вжившись в роль неуклюжего мужичка, он выразительно прочитал стихотворение А. С. Пушкина «Я вас любил» и много и красиво говорил о любви.

В репертуаре музыкально-поэтического вечера звучали песни и стихи на казахском, русском, корейском и даже итальянском языках. Adagio – означает медленно, неспеша. Песня Лары Фабиан рассказывает нам историю женщины в вечном поиске любви и художнике, ждущем Бога вдохновения. Эту песню в современ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многие услышали и полюбили благодаря Димашу Кудайбергену. В тот вечер на сцене театра прозвучало Adagio в исполнении новичка вокальной группы Диаса Жорабека. Молодой вокалист обладает сильным голосом и широким диапазоном. Он спел песню в стиле Димаша Кудайбергена, великолепно выдержав и вытянув высокие октавы. Зал взорвался овациями – смело можно было назвать это самым сильным выступлением вечера.

Также фаворитами были песни из репертуара известного ансамбля «Дос-Мукасан» и знаменитая и любимая песня поклонников корейского сериала «Мальчики краше цветов» – Paradise. Во время песни «Той жыры» зрителям не сиделось на местах, многие стали подтанцовывать, как и полагается на казахских тоях. Зал не хотел отпускать артистов и просил снова и снова спеть «на бис».

Музыкально-поэтический вечер получился очень теплым и по-своему особенным. Ощущения «возвышенной сцены» были стерты. Артисты и зрители словно собрались на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где все пели и поддерживали друг друга.

Сольный концерт вокальной группы K-voice – мечта для фанатов талантливых и обаятельных певцов.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обещает еще раз побаловать зрителей этим концертом в апреле.

Диана СОН
(Сайт «Коре ильбо»)

Твор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ценили в миллиард

Сеул, 11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Ранее неизвестная каллиграфическая работа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Ан Чун Гына (1879-1910), созданная всего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его казни, была продана за 1,3 миллиарда вон (976 000 долларов) на аукционе. Произведение искусства, ушедшее с молотка на аукционе в Сеуле, содержит трогательную надпись китайскими иероглифами «Сердце человека может меняться с утра до вечера, но цвет горы остается прежним», рядом с отпечатком руки самого Ана, без верхнего сустава безымянного пальца. Цитата, взятая из классическог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часто цитируемого литераторами эпохи Чосон, «отражает непоколебимую решимость активиста защищать свою родину»,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Сеульского аукциона.

Каллиграфия была сделана в марте 1910 года в тюрьме Лушунь в Даляне, Китай,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его жизни. Ан был приговорен к смертной казни за убийство Ито Хиробуми, четырехкратно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и перво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резидента Кореи, в китайском Харбине 26 октября 1909 года, за год до аннексии Кореи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ей.

За время своего заключения Ан оставил после себя более 200 каллиграфических работ, из которых, по подтвержденным данным, около 60 сохранились до наших дней как в Корее, так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знала 31 из них национальным достоянием. Выставленная на аукцион работа, в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публике, до сих пор оставалась в Японии и была репатриирована на корейскую землю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лучаю. Победителем торгов стала компания Hanmi Semiconductor, основанная в 1980 году Квак Но Квоном, потомком другого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вак Хан Со.

На последних аукционах каллиграфия Ана пользовалась высокими ценами: еще одна работа была продана за 1,95 миллиарда вон на декабрьском аукционе в Сеул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тав самой дорогой корейской каллиграфической работой, когда-либо проданной на аукционах.

Камень преткновения

Сеул, 10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судила местные власти Японии за снос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амня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Японии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и призвала их немедленно восстановить его.

Недавно в префектуре Гумма снесли мемориальный камень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парке в Такасаки, несмотря на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групп активистов. Памятник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в 2004 году гражданской группой для содействия общественному пониманию общей истории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Япо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1910-45 годах.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судила снос властями префектуры Гумма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амня как «насильственный акт фашизма» и призвала к немедленному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камня. «Это невыносимый и бесчеловечный акт, который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ранит жертв японског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и их потомков», — говорится в комментар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ореи (ЦТАК), отслеженном в Сеул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явила, что снос памятника указывает на отрицание Японией своей истории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и ее стремление прославить колониальное правл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ласти префектуры Гумма должны понимать последствия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вызвала невыносимый гнев, и немедленно восстановить мемориальный камень», — заявило ЦТА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проголосуют 147.989 зарубежных избирателей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на выборах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22-го созыва,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10 апрел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147.989 избирателей,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Это на 34,6%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зидентскими выборами в 2022 году, и на 14% меньше, чем на предыдущи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2020 году. 51,2% зарубежных избирателей будут голосовать в странах Азии, 31,5% - в странах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Америки, 13,3% - в странах Европы. Голосова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8:00 до 17:0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с 27 марта по 1 апреля. Заполненные бюллетени доставят в РК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почтой и распределят по окружным избирательным комиссиям. Они будут обработан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голосования 10 апреля вместе с бюллетенями, заполненными на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ах внутри страны.

Ван И: Мирные переговоры -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тановится всё более напряжённой с каждым днём.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интересам Кита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7 марта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Пекине заведующий канцелярией комиссии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Компартии Китая,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Р Ван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разумных опасени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 поводу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средством диалога 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будет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м способом ослабления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сточник эт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 остатки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которые мешают созданию мирного механизма и принципиальному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ду тем, план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готов. Это предложенная Китаем поэтапна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заключением мир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подчеркнул Ван И.

РК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6 марта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нял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оддержке корейцев, оказавшихся в опасности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кументом, объедин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странах, где возникла кризисная ситуация,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управление за поддержкой в виде предмет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медикаментов. Помощь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из чрезвычайной статьи бюджета совместно с Обществом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Как заявил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Ли Ги Чхоль, в РК впервые создана система оказания оперативной помощи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в кризисных ситуациях.

В Кунсане откроется школа K-POP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городе Кунсане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откроется школа K-POP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торой совместно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Ховон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пилот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Школа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где иностранцы смогут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K-POP.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во время каникул смогут также обучаться в глоб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K-POP. В планах городской мэрии организация телеканала на тему K-POP, который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ся как внутри страны, так и за рубежом.

В Пусане прошла выставка Drone Show Korea

С 6 по 8 марта в Пусане состоялась выставка Drone Show Korea-2024. Её организаторы – мэрия Пусана, ряд министерств и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или 228 компаний из 10 стран, за три дня работы её посетили более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более 2.300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зарубеж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подписаны более 430 контрактов.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Vessel Aerospace подписала контракт с глобальной компанией SkyPower, которая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двигателях дл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Состоялись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инвестиций и продаж.

Фильм Хо Чжин Хо «Обычная семья» приглашён на фестиваль FEFF

Фильм «Обычная семь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Хо Чжин Хо приглашён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26-го Фестива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ино (FEFF) в Удине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Италии. Это крупнейшее в Европе ежег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ённое кинематографу стран Аз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стиваля отметили, что фильм «Обычная семья» захватывает драматическим сюжетом, показывающим истинное лицо человека в условиях выживания. Это история о братьях с разными взглядами на жизнь, которые случайно узнают страшную тайну. Сценарий написан по мотивам романа голландского писателя Германа Коха «У жин».

RKI

В 13 районах КНДР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ча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рупных промкомплексов

П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развернуто масштаб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крупных заводов и фабрик, которые призваны придать стимул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отстающ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чучх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указание дал ранее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телеграф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ореи (ЦТАК),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13 регионах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страны прошли одна за другой церемонии по начал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руп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мплексов. Судя по информации ЦТАК, стройки развернулись в уездах Кучжан, Унсан, Ёнтхан, Ынчхон, Чэрён, Тосин, Уси, Косан, Ичхон, Хамчжу, Кымя, Кимхёнчжик и Чанпхун. Вместе с тем, СМИ КНДР не сообщают, заводы какого профиля или сферы строятся.

Все это делается в рамках исполнения указания вождя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ый недавно провозгласил "стратегию 20-10" по "повышению материаль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стандартов жизни народа". Согласн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я, в ближайшие 10 лет в двадцати уездах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круп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комплексы,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стать локомотивами роста регионов. В качестве объектов программы фигурирую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е районы КНДР, которые серьезно отстают по уровн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т среднего по стране.

Данная кампания по масштабным стройкам в КНДР названа "не прос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а борьбой партии по выполнению данных народу обещаний". Судя по подходу властей и уделяемому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я в СМИ вниманию, все это под свой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взял Ким Чен Ы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Как забастовка врач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парализовала работу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стран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властей и врачей Южной Кореи по поводу реформы сферы подготовки новых докторов нарастает, причем ни одна из сторон не демонстрирует признаков готовности уступи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ообщило, что, как и обещало, оно в понедельник 11 марта провело рассылку для почти пяти тысяч участвующих в забастовке ординаторов и интернов уведомлений о том, что они будут наказаны вплоть до лишения лицензий в случае продолжения своих коллективных действий. Аналогичные уведомления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получат еще около семи тысяч их коллег.

Напомним, что в Корее вот уже около двух недель идет яростное противоборство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врачами.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резко увеличить квоты на набор студентов на медицинс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 вузах, указывая на нехват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и общее старение населения.

Врачи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молодые ординаторы и интерны -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этого, отмечая, что подобные меры приведут к падению уровня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а проблема не будет решена. Ординаторы и интерны проводят массовую забастовку, отказываясь выходить на работу в клиники.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на пятницу 8 марта, в акции участвуют 11 994 специалиста - доктора-резиденты, ординаторы и интерн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это 93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персонала д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Забастовка уже привела к сбою в работе клиник, медучреждени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были перенесены операции, отложено лечение - и лишь в неотложных случаях врачи приступали к работе. К приему гражданских пациентов подключены и военные госпитали.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1 марта ведомство разослал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уведомления" 4944 врачам-резидентам, ординаторам и интернам, которые не выходят на работу. В документ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они будут наказаны согласно действующим правилам. Говорится, что у протестующих могут быть аннулированы их лицензии или иные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которые разрешают им предоставлять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До 25 марта получатели уведомлений могут оспорить документ или предоставить свои объяснения,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ссмотрен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дало понять, что не намерено отступать перед, как говорят чиновники, "шантажом медиков" и готово пойти на показательное увольнение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специалистов, чтобы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отрасли раз и навсегда. Отметим, что власти РК ранее уже дважды при иных президентах страны пытались провести аналогичные реформы, но в итоге сдавались, когда становился очевидным ущерб для пациентов. Сейчас же как нынешний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так и все его подчиненные, включа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и чле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черкивают свой жесткий подход и готовность к противостоянию.

Вместе с тем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К отметили, что вполне могут мягко подойти к тем, кто в итоге одумается и решит вернуться к работ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сдел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Чо Гю Хон в интервью телерадиовеща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KBS.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бастующие тоже демонстрируют нежелание уступать и подчеркнули решимость бороться до конц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к акции могу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старшие доктора и профессора медвузов. В интернете 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едфорумах стали появляться поименные списки тех, кто якобы планирует уступи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собирается вернуться на работу. Полиция предупредила, что начнет проводить аресты руководителей забастовки, а в отношении составителей списков будут приняты строгие меры.

Рядовые же корейцы с тревогой наблюдают за происходящим, надеясь лишь на то, что ни они сами, ни кто-либо из их родных или близких не заболеет в эти дни. Согласно опросам, около 70 процентов жителей РК поддерживают пл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увеличению квот на количество студентов, обучающихся по медицински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в вузах страны. Критики обвиняют врачей в забот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о своем кошельке и страхе перед конкуренци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то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поводу "картеля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Комитет по Аудиту и Инспекция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И РК) официально запросил прокуратуру провест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отношении более полусотни сотрудников сф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част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се они подозреваются в том, что за денежные вознаграждения готовили для частных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х курсов вопросы, очень похожие на те, что появляются в так называемом "суныне" - южнокорейском аналоге российского ЕГЭ.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АИ РК, под подозрением находятс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56 человек. Все они работали или работают до сих пор в сфе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ли част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АИ с сентября по декабр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вел собственную проверку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расли, выявил множество подозрительных случаев, нарушений и в результате запросил прокуратуру начать расследование. Местные журналисты назвали всю эту ситуацию "скандалом с картелем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РК".

Если обобщать основную суть нарушений, то о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педагоги,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составлении вопросов для настоящего "сунына" или проч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делали очень похожие пособия для частных учебных курсов, где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ЕГЭ. Как известно, в Южной Корее очень велика важность образования, а поступление в хороший вуз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условий успешной карьеры. В этой связи на учебу и подготовку к "суныну" тратятся огромные средства, а к самому экзамену приковано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унын" - один из самых главных, если не самый главный тест в жизни гражданина Южной Кореи.

Все это и использовали в своей "работе" подозреваемые в нарушениях. Судя по озвученным некоторым примерам, они получали очень неплохие деньги за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частности, КАИ РК, не называя конкретных имен, говорит о старшем преподавателе вуза, который создал группу из восьми коллег.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для частных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х курсов они подготовили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тестовых вопросов, за что получили 660 миллионов вон или более полу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то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поводу "картеля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ами педагоги участвовали в работе по подготовке официального "сунына", а потому их вопросы для частных курсов очень сильно напоминали настоящие, что дало учащимся курсов преимущество при подготовке.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в Корее огромное множество подобных курсов и все они конкурируют между собой по тому, какова доля их учащихся хорошо сдает "сунын" и поступает в престижные вузы. Хороший такой показатель позволяет завышать стоимость своих курсов, а родители вынуждены раскошеливаться.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АИ РК, на наличие "подозрительно похожих" вопросов в частных пособиях и самом корейском ЕГЭ неоднократно указывали корейские школьники. Особенно прославился "вопрос № 23" в раздел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сунына" 2023 г., который был просто идентичен тому, что содержался в одном из пособий. Было даже подано 215 заявлений с просьбами провести проверки, но контролирующие органы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либо проигнорировали, либо провели недостаточную проверку обращений. Было также отмечено, что в органах образования не проводили сравнение содержания частных пособий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экзаменов на предмет выявления подобных нарушений.

В Комитете по Аудиту и Инспекциям РК не стали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что может грозить тем учителям и прочим сотрудникам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кого уличили в нарушениях, однако,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речь будет идти о крупных штрафах, запрете на ведение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даже тюремных срока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Глава Минцифры России высоко оценил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ект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аксут Шадаев находится в рабочей поезд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накомил федераль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с проектам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сделать жизнь людей на островах комфортнее.

Благодаря цифров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управлению данными удалось на треть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талонов к специалистам. Сегодня действует стандарт: пациент должен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асть к терапевту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 Сахалин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как центр инноваци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птимизации процессов госуправления и оказания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В регионе наработано мног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практик, с которыми мне хотелось лич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один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уровней цифровизации в стране, и главное, что это делается не для галочки, 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 примеру,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хронические пациенты получили персональных помощников. Таких проектов я не встречал нигде, и он хорош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человекоцентричный подход губернатора и сахалинских властей к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аксут Шадаев.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за каждым пациентом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закрепили перс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в, или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Они напоминают людям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сетить доктора или сдать анализы, помогают получить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и адресно решают любые медицинские вопросы.

– Раньше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получали фиксирован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Теперь сумма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сколько пациентов закреплено, сколько звонков сделано, а где администратор недоработал, и человек умер. А недавно губернатор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чтобы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лично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о своими подопечными,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Сегодня о сахалинцах и курильчанах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заботятся более 600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Они не понаслышке знают о трудностях пациентов: медицинские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сами перенесли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или помогают справиться с недугами своим родным.

– Главная цель внедрения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 это улучшение жизни людей. Чтобы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было удобно записаться к врачу, получить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без лишних справок, сообщит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свой двор или подъезд и решить множество других повседневных и масштабных вопросов. К примеру, мы взяли под контроль время работы каждого врача, убрали регистратуры, и теперь не откладывают талончики «для своих», а на 30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пациентов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к доктору. Во время мощного снежного циклоны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на карте отмечало, какие дороги и дворы расчищены, а какие нет и оперативно направляло туда техник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 примеру, в сфер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роект «Борьба с бедностью» помог улучшить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островных семей. С каждым человеко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работают индивидуально.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омогают оформить льготы,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и получить более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открыть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устроить детей в детские сады и школы. На каждую семью составляют цифровой паспорт и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вышени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В отрас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зволяют управлять рисками. Любой объект загружен на специальную платформу,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можно отслеживать малейшие отставания от графика. А в ЖКХ цифровая карт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помогае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качество уборки снега зимой, пыли и грязи – лет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диаСаммит 2.0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Крупнейшая конференция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едиасферы в этом году станет выезд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диаСаммит в 2024 году прирастает новыми форматами –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диаСаммит 2.0»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4-5 июля. Об этом договорились организаторы форума – Приморское и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диаСаммит - крупнейшее медиа-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СМИ, PR и блогосферы, с 2014 года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Участниками ежегод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ое ведет свою историю с 2014 года, становя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асс-медиа все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рубежных СМИ, федера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а также ведущие отраслевые эксперты России.

Ключевая цель отраслевого форума - объединение медиасообщества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и решения а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в сфере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диаСаммит проше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уже в 10-й раз. За эти годы на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далось сделать форум событие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масштаба. В отдельные годы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достигало 7 тысяч человек за два дня, а эксперт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и ведущих СМИ, иностранные гости. Традиционно у нас собирались участники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что оправдывал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статус наш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перезагрузку мероприятия и реализовать новый выездной формат форума, чтобы сделать мероприятие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 для жителей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нет первой территорией, где пройдет форум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В последующем выезд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ются на друг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в частности, на Камчатк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ешение руководитель оргкомитет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МедиаСамми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имо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Виктор Суханов.

«Уверен, журналист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 радостью и гордостью услышит новость о том, чт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диаСаммит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пройдет именно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За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этого форума немал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ллег успели в нем поучаствовать и оценить достоинства подобных встреч. Я то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бывал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МедиаСаммите, всегда узнавал много актуальн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ивозил массу полезных идей и контактов. Но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была, к сожалению, далеко не у всех сотрудников островных СМИ и пресс-служб. А теперь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ас, в том числе, коллеги из районов, смогут пообщаться с лучши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нашей профессии, приеха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Это здорово! Актив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программы и подготовке к мероприятию. Уверены, что оно будет иметь высокую практическую ценность как для региона, так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диаСаммит 2.0 – Сахалин» намечен на 4-5 июля 2024 год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идет разработка программы, в которой учитываются пожелания медиа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жными темами дискуссий и мастер-классов станут таки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как консолидация общества и новая российская идеология, сценарии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ых и печатных СМИ, возможности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новые законы 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СВО и 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повестка, а также другие.

В этом году в двух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ах повысится качество питьевой воды

В этом году улучшится качество питьевой воды, которая подается жителям сел Онор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Правда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заработают новые станции водоподготов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объектов водоснабжения стартовал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Чистая вода». Он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запуще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К сожа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е всегда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высоким качеством воды. Во многих реках и родниках она изначально замутненная, поэтому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еобходимо уделять водоподготовке. Людям из крана должна идти чистая и безопасная для здоровья вода.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федер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ведем масштабную и планомерную работу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вод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пример, в текущем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69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2025 – 472,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Считаю, эти средства –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здоровье и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е Онор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бустройство трех водозаборных скважин, установку резервуаров чистой воды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анции водоподготовки на 210 кубометров в сутки. Уже завершено создание фундамента под резервуары чистой воды, выполнено цементирование скважин, проложены сет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около одного километра. В середине декабря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л к монтажу павильонов станции водоподготовки. Сейчас на объекте -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перерыв. Связан он с тем, что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работ необходимы плюсовые дневные температуры. Заверши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к концу го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более 900 жителей села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качественной водой.

– Проект «Чистая вода» реализуется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с 2014 года. Для каждого округа или района специалисты разрабатывают оптимальные реш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ам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селе Правда строится блочно-модульная станция очистки воды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ю 500 кубометров в сутки.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заменит устаревшее, позволит очистить воду до норматив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и повысить надежность водоснабжения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в котором проживает 1600 человек.

–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работ на объекте идет монтаж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здания водоочистки. Также ведется устройств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емкости. Подготовлены фундаменты под резервуары чистой воды и дизель-генераторную установку, частично проложены внутренние сет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 намечено на четвертый квартал 2024 года,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МКУ «Служба единого заказчика»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ндрей Гудзев.

- Безусловно, м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чистую воду. Устали мы уже от проблем с водоснабжением,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Онор Татьяна Раздобреева.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воды ведутся во мног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еле Хоэ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заверши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анции водоочистки и прокладка водопровода, в селе Взморь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ыполнена замена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Сейча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роится водозабор «Южный» мощностью 20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в сутки. В селе Восточное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ступили к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станции очистки воды. А в Охе вскоре начне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одозабора и станции очистки воды, а также замена городских сетей.

26 километров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обновя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Всег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2023-2027 годах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более 47 км сетей тепл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качественн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услугами обеспечат почти 9 тысяч человек. Работы проводят с участием средств Фонда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стали 12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9-ти работы уже завершены.

– В результате, для более чем 6 тысяч человек улучшилось качество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Программа модернизации сетей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была запущ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действующую регион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ено 47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сетей тепл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на 2023-2024 годы,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работ выполне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десь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5,3 км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2,2 км –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и 0,4 км – водоотведения. В Шахтерске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модернизировали сет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свыше 1 км, а также более 2 км сетей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 Последние пару лет часто случались порывы на теплосетях,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в квартире ненадолго отключали тепло. У меня маленький ребенок, поэтому приходилось доставать обогреватель. Надеюсь, что после замены сетей, отопление в наших домах будет бесперебойным,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Шахтерска Ольга Власенко.

До конца года работы проведут еще на 17 объектах, всег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26 км инжене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정부, 한국 발전상 해외 교과서 수록 추진… 한글학교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동반성장 집중"
'700만 재외동포' 자산 활용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방침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정부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동포사회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각국에서 재외동포에게 한국어·한국 역사와 문화 등을 교육하는 한글학교 1천462곳의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3월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6월 출범 후 13회의 대통령 참석 해외 동포간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200여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민생 현장 방문과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향후 5년간 추진될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재외동포청은 ▲일회성 행사 중심이 아닌 동포사회에 근본적인 이익을 주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700만 재외동포와 동반성장을 추구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 등을 동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사회의 주력이 이민 1세대에서 2, 3세로 교체돼 현지화가 진행되면서 한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있다. 차세대의 경우 혼혈 및 다중 정체성을 가진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과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재외동포에게 교육함으로써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방침이다.

동포청은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요 15개국을 방문해 지역별·분야별·세대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모국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발전상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단체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협력해 발전상 동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나라의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동포 사회, 외교부, 국내 민간 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자긍심 함양과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도 시너지를 내는 사업"이라며 "더욱이 브랜드 파워가 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기여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2차대전 후 독립한 80여 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한국 발전상의 교과서 수록은 동포 차세대에게는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라며 "현지 교과서에 이를 수록하는 일에는 거주국 참정권을 가진 재외동포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포청은 한글학교 운영비를 지난해(141억원)보다 25.7% 증가한 177억원으로 배정해 교사 사기 진작과 교육 및 운영 환경 개선에 나선다.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19억원)보다 44.6% 증가한 27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스터디코리안 운영 개선, 저소득 자녀 수강료 지원 확대 등 정규교육 강화, 재외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교육 확대 등에 쓰일 전망이다.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 국격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지원… 인식 개선 캠페인

동포청은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재외동포 지원 등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인 동포 등을 위한 '귀환 재외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한다.

지난해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 재일동포와 파독 근로자 등 지금까지 소외됐던 동포들을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모국으로 초청해 예우하고 조국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를 반영해 최근 확정한 범정부 중장기 종합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지난해 말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보듬기에 나선다.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초청 사업, 동남아시아 지역 등 다문화 취약 가정 자녀의 모국 방문 등도 진행한다.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이주 배경 등의 내용을 한국 국·검정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개선

동포청은 대통령 해외 순방 등의 계기에 동포간담회를 개최해 재외동포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한다. 분야별 재외동포 초청·지원 사업 외에도 코리안넷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첫 해외 개최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내실화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동포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도 부여한다.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이용할 때 국제전화 사용료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데이터 통화, 채팅 상담 등을 추가한다.

재외동포들이 온라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공서·은행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를 도입하고,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해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낮은 자세로 재외동포와 소통하며 손톱 밑 가시를 빼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국과의 상생발전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14만7천989명 대선 때보다 34.6% 감소

아시아 · 미주 · 유럽 순
3월 27일~4월 1일 재외투표 실시

(서울=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수가 총 14만7천989명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재외선거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재외선거를 신고·신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는 11만9천897명이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2만8천92명이다.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34.6% 줄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 거주자가 51.2%(7만5천830명)로 가장 많았고 미주 거주자가 31.5%(4만6천595명), 유럽 거주자가 13.3%(1만9천624명)로 뒤를 이었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96.0%가 아시아·미주·유럽 등 3개 대륙에 분포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미국(3만3천615명), 일본(2만4천466명), 중국(1만7천95명) 순으로 많았고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9천122명),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6천736명), 상하이총영사관(6천630명) 순이었다.

재외투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 현지 시각 기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보내진다. 개표는 4월 10일 선거일 투표 종료 후 국내 투표와 함께 진행된다.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했다면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주소지나 최종주소지·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뒤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재외동포청, 국내 청년에게 재외동포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4~27일 한상넷(www.hansang.net) 통해 지원…
설명회도 열어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상반기 재외동포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국내 청년을 모집한다.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들에게는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재외동포 기업에는 맞춤형 국내 우수인력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인턴십 파견 인원은 45명 정도다.

인턴 채용 대상 기업은 미주,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국가에서 활동하는 동포 기업이다.

연 매출 100만달러(한화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기업이며 소재 국가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파견 인턴의 현지 적응과 실무 교육도 가능해야 한다.

인턴십에 최종 합격해 해외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재외동포청이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매월 11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장기체류 보험(1인당 최대 50만원)과 국내 사전 교육비도 제공한다.

재외동포청 지원금과 별도로 현지 동포 기업은 국가별 최저시급 이상의 보수(최소 월 700달러)를 인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단, 기업별 지원금은 상이하다.

재외동포청은 모집기간 동안 국내 청년들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14일과 19일 오후 5~6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 청년은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턴십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상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У пожилых людей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ой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активного, здорового долголетия. Нам важен и ценен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чтобы он чувствовал свою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прожил долгую и, главное, здоровую жизнь, радовался внукам, правнукам», – сказал в одном из выступлений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алентина Шостак с выходом на пенсию начала еще активнее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Сейчас она ходит в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и бассейн. Отмечает, что физиче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оказывает хороше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организм.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мы занимаемся в спортивном зале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в том числе – играем в теннис. Кроме того, ходим в бассейн в Аква-Сити раз в неделю. Программа очень помогает, спорт укрепляет здоровье, колени не болят, давление не мучает,» – отметила Валентина.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старше 55 лет.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ть в регионе и иметь «Единую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Программа оказалась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й. Ей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уже более 41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с 2019 год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5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사할린의 '고르늬 워즈두흐' 스키단지, 3년째 방문자 수 기록적

올해 겨울시즌 사할린에 '고르늬 워즈두흐' 산악스키 휴양소의 총결산이 발표된 가운데 28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3만 명이 다녀갔는데 이 방문자 수도 당시에는 기록적이었다. 이러한 기록 경신이 3년째 집계되고 있다. 수치 집계 이전 2022년 당시에는 최대 인원 21만 명이 방문했었다.

이에 사할린주 관광부 아르쫌 라자례브 장관은 '"고르늬 워즈두흐'는 최근 5년간 그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들의 최고의 산악스키 휴양지 목록에 들어갈 수도 있다. 현재 사할린 휴양지는 수용력에 있어 극동지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사할린주 관광부에 따르면 휴일에는 하루 평균 6천-6천500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나 겨울철 흥미로운 수치로는 2024년 고르늬 워즈두흐 리프트 이용 개찰구를 통과한 사람이100만 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ый воздух»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бьет рекорды посещаем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зимнего сезон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для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этом году его посетили 280 тысяч человек. Это на 30 тысяч больше показателя 2023 года, хотя тогда тоже был поставлен рекорд по количеству приехавших гостей. К слову, рекорд - третий по счету. До названных цифр, в 2022 году сюда приехало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человек на тот момент, а именно 210 тысяч.

- Популярность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растет и уже в ближайшие 5 лет он может войти в число лучших горнолыжных курортов России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Уже сейчас сахалинский курорт по своим возможностям является лучши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В мин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сообщили, что в выходные дни средняя посещаемость составляет 6-6,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И приводят еще одну занимательную цифру сезона: турникеты за зиму 2024 года зафиксировали одни миллион визитов.

3월 8일, 상위 5위권의 특별 선물

세계 여성의 날에 받은 남다른 선물에 대해 러시아 여성들이 이야기한 가운데 싱그러운 꽃다발, 애완동물, 주방용품, 여행상품이 상위에 올랐다고 수퍼잡(SuperJob) 온라인 서비스가 전했다.

3월 8일에 전통적인 선물이 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심의 표시로서 꽃을 꼽은 응답자는 8%였다. 여성들은 특이한 생화를 받았는데 한 예로 꽃이 핀 선인장 또는 101 송이 장미 꽃다발을 받았다고 했다. 2위 선물로 애완용 동물이 차지하며 러시아 여성 응답자의 6%가 강아지나 고양이, 앵무새를 받았다고 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3%는 여행상품과 주방용품을 언급했고, 응답자 중 2%가 장식품, 다양한 상품권, 장난감, 제과류, 현금, 문화행사 티켓을 선물로 받은 게 평범하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1%는 청혼, 자동차, 의류, 신발, 가전제품, 전자기기를 선물로 받았다. 미혼 여성들은 이날 잼, 반찬,나비, 차량연료, 현관문, 노래, 현미경, 사진 촬영, 체스를 선물로 받았다고 답했고, 동시에 여성의 10명 중 4명은 아무런 특별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미혼 여성 1600명이 참가했다.

Топ-5 необычных подарков на 8 Марта

Россиянки рассказали о неординарных подарках,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В топ вошли экзотические цветы, домашние питомцы, кухонны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и поездки, сообщает онлайн-сервис SuperJob.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цветы являются классическим подарком на 8 Марта, 8% респондентов выделили их как необычный знак внимания. Женщины отметили, что получали редкие виды растений, например, цветущую опунцию или огромные букеты из 101 розы.

Второе место рейтинга заняли домашние животные. Оказалось, что 6% опрошенных россиянок получали в подарок собак, кошек и попугаев.

Еще по 3% участниц опроса назвали путешествия и кухонную утварь. Для 2% респондентов необычными стали подарки в виде украшений, различ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а также игрушек, сладостей, денег и билетов на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тметим, что только 1% получили в подарок предложения о замужестве, автомобиль, одежду, обувь,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и гаджеты. Также девушки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получили на праздник варенья, соленья, бабочек, топливо, входную дверь, песню, микроскоп, фотосессию и шахматы.

В то же время 4 из 10 женщин отметили, что не получили ничего необычного.

В опросе сервис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600 девушек со всей стран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клама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